

배포 2026. 6. 25.(목) 08:00

 보도시점 (인터넷) 2026. 6. 25.(목) 12:00
 (지면) 2026. 6. 26.(금) 조간

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(2027~2030년) 초·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 발표

-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되, '지역균형성장' 및 '미래 인재양성 지원'을 고려한 양질의 교육여건 지원
- 고교학점제, 기초학력 보장, 인공지능(AI) 인재양성 등 교육 분야 주요 국정과제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교원 확보로,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

교육부(장관 최교진)는 6월 26일(금)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여건의 변화 가운데, '지역균형성장'과 '미래 인재양성 지원'을 위한 「중장기(2027~2030년) 초·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(이하, 교원수급방향)」을 발표한다.

이번 교원수급방향은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면서도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 균형 잡힌 교육여건을 조성하고, 지역균형성장과 미래 인재양성 등 교육 분야의 당면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교원을 적시 뒷받침하고자 마련되었다.

< 중장기('27~'30) 교과교원 수급방향 개요 >

학생 수 감소 대응	지역균형성장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되, 현재-미래 세대 간 교육여건 균형 확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인구유입·감소 지역의 학급 운영 등 기본 교육여건 지원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교육분야 주요 국정과제 지원 • 고교학점제 • 기초학력 보장 • AI 인재양성

※ 유치원, 특수, 보건, 영양, 사서, 전문상담 교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별도 산정

본 교원수급방향을 기반으로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도별 초·중등 교원 정원*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.

* 「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」 개정(매년 2월경)을 통해 각 연도 교원 정원 발표 예정

교원수급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학령인구 감소 대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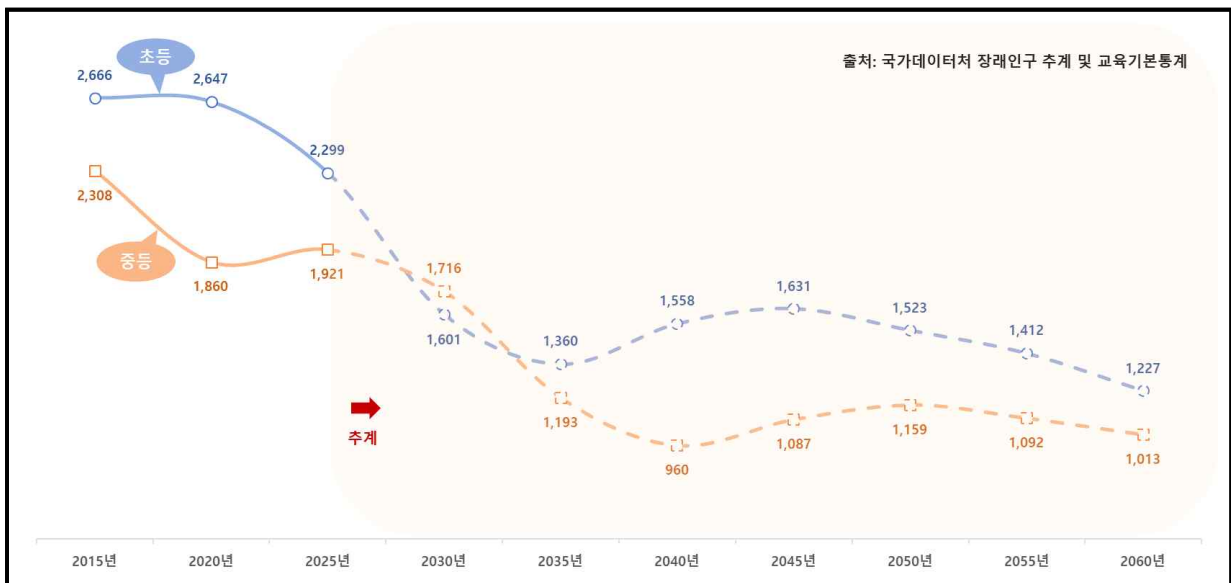
전반적인 학생 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등 학생 수*는 소폭 증가하는 등 학생 수 변동 추이는 연도별, 학교급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. 2023년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등에 따르면 공립 초·중등 학생 수는 2025년 대비 2030년까지 약 90만 명(약 21%)이 감소**하며, 이후 감소를 지속하다 초등 2034년, 중등 2040년 이후 일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.

* [공립 중등 학생 수, 교육통계] ('22) 186만 명 → ('25) 192만 명

** 학생 수 급감의 충격이 이미 시작된 초등의 경우 약 70만 명(약 30%), 중등의 경우 약 20만 명(약 11%) 감소 예상

이번 교원수급방향은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모두 양질의 교육여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, 중장기 통계 자료에 기반한 향후 학생 수 변동 추이를 분산하여 반영하였다.

< 2015~2060년 공립 초·중등 학생 수 현황 및 추계 >



구 분		2025년	2030년	2035년	2040년	2045년	2050년
초 등	공립 학생 수(천명)	2,299	1,601	1,360	1,558	1,631	1,523
	2025년 대비 증감률	-	△ 30.3%	△ 40.9%	△ 32.2%	△ 29.1%	△ 33.7%
중 등	공립 학생 수(천명)	1,921	1,716	1,193	960	1,087	1,159
	2025년 대비 증감률	-	△ 10.7%	△ 37.9%	△ 50.0%	△ 43.4%	△ 39.7%

※ 출처: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및 교육기본통계 등

2.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지역 맞춤형 지원 강화

전국 평균 학생 수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, 인구감소(관심)지역* 소규모 학교와 인구유입지역의 과밀학급의 경우 교원 배치 시 지역 특성과 교육여건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.

* 「지방분권균형발전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지역

이에 인구감소(관심)지역 내 초·중고 소규모학교에서 학생 학습권 보장과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적정 수 교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. 신도시 등 인구유입지역에서는 학교·학급을 신설하고 과밀학급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3. 주요 교육수요 지원

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이 다변화되면서, 초·중등교육에서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다양한 역량과 잠재력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. 이에, 변화하는 교육 현장의 교원 수요를 고려하여 교원이 학생 맞춤형 성장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.

먼저, 2025년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도입 취지에 맞게 성공적으로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중등 교원을 지원하여,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및 고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여건을 조성한다.

또한 ‘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(국정과제 101)’를 위해 학생별 수준에 맞는 기초학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·중등 기초학력 전문교원 배치를 지원한다.

아울러 ‘인공지능(AI)·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(국정과제 99)’ 추진을 위해 정보교과 교원 배치를 지원하여, 인공지능(AI) 중점학교* 확대 등 초·중·고등 학생의 인공지능(AI) 역량 함양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.

* 일반 학교 대비 정보교과 시수 확대(예: (초) 34→68시간, (중) 68→102시간, (고) 학교 자율 편성 → 매 학기 편성) / ('26) 1,000교 → ('27) 1,500교 → ('28) 2,000교 목표

4. 2027~2030학년도 공립 교과교사 신규채용

학생 수 감소 및 국가 교육정책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이번 교원수급 방향에 따라, 2027학년도 교사 신규채용은 초등 2,700~2,900명 내외, 중등 4,700~5,100명 내외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.

단, 연도별 신규채용은 시도교육청별 교원 퇴직·휴직 규모 등 인력 운용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, 지역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 2027학년도 신규채용 규모는 9월 중 최종 공고된다.

< 2027~2030학년도 공립 교과교사 신규채용 규모(안) >

학년도		'27	'28	'29	'30
초등	학생 수(천 명)	2,035	1,871	1,721	1,601
	신규채용 교사 수(명)	2,700~ 2,900 내외	2,600~ 2,900 내외	2,500~ 2,800 내외	2,500~ 2,800 내외
중등	학생 수(천 명)	1,852	1,835	1,796	1,716
	신규채용 교사 수(명)	4,700~ 5,100 내외	4,200~ 4,600 내외	3,500~ 3,900 내외	3,300~ 3,700 내외

※ 중장기(2024~2027) 수급계획('23.4.)에 따른 2027년 신규채용 규모
: (초등) 2,600~2,900명 내외, (중등) 3,500~4,000명 내외

※ 신규채용 규모는 '26년 이후 실제 퇴직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변동 가능

- [참고: 명예퇴직 현황] ※ 출처 : 시도교육청 취합 자료 기준

(초등) ('22) 2,212명 → ('23) 2,812명 → ('24) 3,056명 → ('25) 1,955명 → ('26(예정)) 1,425명
(중등) ('22) 3,604명 → ('23) 3,686명 → ('24) 4,043명 → ('25) 2,561명 → ('26(예정)) 1,704명

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“교원수급은 학생 수 감소뿐만 아니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수요와 환경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.”라고 말하며, “이번 중장기 교과교원 수급방향을 토대로 지역균형성장과 국가 인재양성을 뒷받침할 양질의 교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교원교육자치지원관 교원정책과	책임자	과장	장세은 (044-203-6480)
		담당자	사무관	김경주 (044-203-6481)
			주무관	윤재일 (044-203-6486)

